

# 세계화와 선진국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94년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GNP)이 3,769억\$로 세계 제11위의 국가가 되었고, 1인당 GNP도 8,483\$로 세계 32위의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짧은 기간내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 것으로, 이번 대통령의 구라파 순방에서도 이제 제3국의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고 한국의 짧은 기간내 경제발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곧 OECD에 가입 신청을 할 것이고, 금융시장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어 외형상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이게 되었다. 3월 23일에는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세계화 하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힘든 일은 동남아 후진국에서 연수생을 불러다 시키면 되고, 농업분야도 인력부족으로 연수생을 받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29%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 수출입도 수출 30억4천8백만 달러에 수입은 87억1천5백만 달러로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액(63억3천5백만 달러)의 89.5%인 56억6천7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농산물을 자급 또는 수출하는데 농업만큼은 아직 선진국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달러가 많으면 일본처럼 좀 수입해서 먹어도 되지만, 연간 63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에서 이중 약 90%가 농산물 때문이라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연초 달러당 788.7원하던 것이 지난 3월 23일에는 768.4원으로 달러 투매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금년 말까지 750원 정도로 버티어 주기를 희망하지만, 740원까지 절상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다. 연초에 비하여 6.2%가 절상되는 것이다. 물론 사료곡물을 비롯한 사료원료나 동물약품, 각종 수입되는 축산기자재의 값이 그만큼 싸지겠지만, 우리는 즐거워 할 수 만도 없는데 현실이다.

이미 냉장돼지고기는 수입개방 되었고, 다만 유통기한의 연장만을 기다리는 형편에 있으며 '97년 7월 1일에는 냉동돼지고기도 완전 개방되

66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원(₩)화가 대폭 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축산물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하여 안정기준 가격을 정해 엔(¥)고에도 차액을  
 관세로 흡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관세화로 원화가 10%  
 절상되면 생산비를 10% 내려야 되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게 된  
 것이다. 환율의 큰 변동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에 너무  
 소홀한 감을 느낀다. 세계화가 우리나라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99

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원(₩)화가 대폭 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축산물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하여 안정기준 가격을 정해 엔(¥)고에도 차액을 관세로 흡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관세화로 원화가 10% 절상되면 생산비를 10% 내려야 되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게 된 것이다. 환율의 큰 변동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에 너무 소홀한 감을 느낀다. 세계화가 우리나라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하나 금년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돼지고기의 안전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때에는 돼지고기의 (식품의)선택 기준이 영양가, 기호성, 안전성의 순서였으나, 이제 GNP 10,000\$ 시대를 앞두고 우리도 식품의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안전성, 기호성, 영양가의 순으로 선택기준이 변하여 무엇보다 안전성이 식품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되었다. 최근 무공해 청정식품이

란 단어가 크게 사용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축산물에 항생제, 설파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도 현행법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여 유해물질이 잔류된 축산물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도 외국의 압력 이전에 국내 소비자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계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금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이번 WTO 사무총장에 내정된 이태리의 루지에르씨는 물건이 국경을 넘지 못하면 군대가 국경을 넘게 된다는 무서운 말을 하였다.

전쟁은 인명과 재산이 날라가고 흑사병은 인명은 날라가고 재산은 남는데, 경제전쟁에서 패배하면 재산은 날라가고 인명만 남게 된다.

우리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남는 것이 하나 더 있다.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의 빚이 남게 될 것이고, 사료회사에 사료 빚도 남게 될 것이다.